

“광주비엔날레, 경계없는 예술로 세계브랜드 돼야”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행사 강연차 내한 팔레 드 도쿄 장 드 르와지 관장



장 드 르와지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 관장이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의 문화, 예술, 정신적 브랜드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이 장 드 르와지(Jean De LOISY)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관장을 초청해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중 하나인 강연 시리즈를 시작한다.

장 드 르와지 관장은 21일 오후 6시 서울 흥익대 흥문관 가림홀에서 ‘예술의 사회적 변화’(ART & Social Change)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 앞서 광주를 찾은 장 드 르와지 관장을 20일 광주비엔날레

“동남아·중동 등 소외지역 탐구 선행

사회·시민사회·경제로 영역 확장

제약 없는 예술 공간으로 꾸며져야”

재단에서 만났다.
그는 광주비엔날레의 태동을 함께한 인물이다. 당시 프랑스 퐁피두센터 큐레이터였던 그는 성완경, 오광수, 유흥준 등 6명과 함께 참여 작가와 작품을 선정했다. 그리고 매회 행사 때마다 광주를 찾아 조인하고 있다.
“영광스럽게도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행사가 된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적 순간(제1회 광주비엔날레)을 함께할 수 있었다. 당시 선정했던 신진 작가들이 비엔날레와 함께 유명 작가로 성장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사실 광주비엔날레 전에는 유럽에서 한국은 예술에 있어 생소한 곳이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200여 개 비엔날레 중 3대 비엔날레로 성장하면서 점차 한국이 예술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비엔날레의 역할이 컸다.”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중동 등 소외 지역에 대한 탐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인했다. 또 예술의 경계를 사회, 시민사회,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세계화 속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자본주의’다. 비엔날레는 자본주의와 별개인 유일한 플랫폼이다. 또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은 ‘저항’을 지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엔날레는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동남아, 중동, 젊은 작가들에 특화돼 있는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광주비엔날레는 전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 비엔날레는 예술의 경계밖에 어떤 예술활동이 있는지 어떤 시민사회가 있는지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그는 그동안 기획한 20여 차례의 전시에서 동시에 다 문제와 예술의 관계, 역할 등에 대해 다루었다. 그가 말하는 동시대 미술과 예술의 역할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 우리의 정신을 탐구하고, 전에는 표현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 드 르와지 관장으로 있는 팔레 드 도쿄는 예술로 버려진 공간을 재생한 대표적 사례다. 1937년 국제 박람회 때 일본관으로 지어진 뒤 방치됐다가 문화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대 미술 전시관으로 변모했다. 특히 ‘모든 것이 가능한 미술관’이라고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전시로 유명하다. 그는 문화공간은 삶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제약 없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팔레 드 도쿄에서는 작가들이 실제로 공간 자체를 부수고, 파괴할 수 있다. 그만큼 새롭고 거친 전시를 한다. 문화공간은 공간 자체가 유연해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문을 연다고 들었다. 복합공간도 작가, 예술가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작가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전시하면서, 공간들끼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관객·작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 문화전당이 지식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무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장 드 르와지는 미술사가, 비평가, 큐레이터로 퐁피두센터 큐레이터, 베니스비엔날레 이스라엘관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동아 이정록

김동아·이정록 작가 스튜디오 작가 선정

한국화가 김동아(여·29)씨와 사진작가 이정록(44)씨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형성)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상해 히말라야미술관 주가각예술관 국제레지던시 참여 작가로 선정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작가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에게는 국제 왕복 항공료와 창작비가 지원된다.

김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10년 대한민국한국화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로체스터공과대학 영상예술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한 이씨는 2012년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여했고, 2006년 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구진희 유소영

꿈을 연주하다

25일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연주회

새 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연주자들이 무대에 선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한정숙 호신대 교수) 2014 신인음악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1990년 만들어진 광주피아노 아카데미는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작곡가별 테마 기획 시리즈, 향토 작곡가 피아노 신작 연주회 등을 열어왔다. 특히 지역 피아노 단체로는 드물게 창작 피아노 독주곡을 공모, 연주회를 열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유소영, 구진희, 조수신, 조민지, 박희아, 김가혜씨가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쇼팽의 ‘녹턴 Db장조 작품 27’, 프랑크의 ‘전주곡, 코랄과 푸가’, 라벨의 모음곡 ‘거울’ 중 ‘이리광대의 아침 노래’, 슈만의 ‘심포니 연습곡 작품 13’, 쇼팽의 ‘폴로네이즈-환상곡 작품 61’, 이다.
문의 010-7148-12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물결치는 생명의 에너지

대담미술관, 다음달 7일까지 임현희전



‘내가 지금 여기 물결지라도’

넉치는 에너지가 화폭을 넘어 갤러리를 감싸는 것만 같다. 사람의 기운이, 자연의 에너지가, 우주의 흐름이 리본처럼, 활판처럼, 물방울처럼 퍼지고, 또 회오리친다.
대담미술관은 다음달 7일까지 ‘2014 기획초대 전시작가 공모’에서 선정된 서양화가 임현희씨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임씨는 이번 전시에서 100호 크기의 작품 등 모두 9점을 선보인다. 4개 작품이 연결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가장 눈에 띈다. 푸른 바탕에 짙은 붉은색으로 채색된 강한 선들의 연결과 얽힘이 실핏줄처럼, 인간 사회가 내뿜는 에너지처럼 표현돼 있다. 거칠고 관능적인 느낌의 나무와 태양, 배경들이 퍼져처럼 연결된 ‘내가 지금 여기 물결지라도’도 자연이 내뿜는 에너지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임씨는 “선이란 바로 그 대상이 가진 기운을 담아내는 무한한 힘”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이화여대에서 회화 및 판화를 전공했으며, 영국 쉘시예술대학에서 서양화 PG Dip 코스를 마친 후 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갤러리 버튼, ST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수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디어로 만나는 역사·문화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4월22일부터 7월8일까지 매주 화요일 ‘시대의 거울, 미디어에서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3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바다문화학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영화, TV드라마, 소설 속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강좌는 4월22일 열리는 ‘영화 관상-얼굴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소재구 소장)를 시작으로 ▲영화로 떠나는 불교 여행(승가대학교 월호 스님) ▲소설 ‘칼의 노래-이순신과 임진왜란’(소설가 김훈) ▲드라마 ‘정도전-고려인 정도전의 개혁 사상과 조선 건국’(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 ▲드라마 ‘바람의 화원-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문복’(이태호 명지대 교수) 등 10차례 강의와 나주, 보성·순천으로 떠나는 문화유적답사로 꾸며진다.

인원은 100명으로 2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답사비 별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amus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270-2044~4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기타 선율로 듣는 봄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정윤준 콘서트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봄을 맞아 22일 오후 5시30분 교육관 대강당에서 ‘정윤준이 들려주는 봄 이야기’를 테마로 기타콘서트를 개최한다.

‘스타카토 리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정윤준씨가 참석해 저스틴 킹의 ‘Knock on wood’, 마사아키 키시베의 ‘Thank you for’ 등을 비롯해 자작곡 ‘It’s snowing’ 등 17곡을 해설과 곁들여 선보일 예정이다.

정씨는 멜로디, 리듬, 화성을 한 대의 기타만으로 표현해 내는 핑거스타일 주법을 이용한 기타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기타리스트다.

공연은 무료로 오후 5시10분까지 입장해야 한다.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회원가족별)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패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뷰)
부담없는가격·풍부한샐러드바
웰빙의아재와최고기 샐러드바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원(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

